

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

이상윤(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)

1.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

○ 노동자 건강은 다양한 사회적,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

-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 : 한 사회의 산업 구조, 생산 방식, 노동의 구조, 기술의 발전 정도, 노사 관계, 사회적 규제의 강도, 사회안전망의 존재 여부 등
-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 :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리화학적 물질 혹은 요인, 생물학적 요인 등
-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인 : 흡연, 음주, 약물 복용 등

○ 경제위기시에는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회적, 환경적 요인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

- 사회적 요인의 변화 : 노동시간 감소, 실업률 증가, 규제 완화,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등
- 환경적 요인의 변화 : 값싸고 유해한 물질의 사용, 노후한 생산 설비의 사용 등
- 개인적 요인의 변화 : 음주율 증가, 흡연율 증가, 약물 복용 증가, 스트레스의 증가, 육체적 활동량 증가 등

○ 이와 같이 경제위기시에는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침

- 경제위기,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, 노동자 건강의 상호 관계를 개념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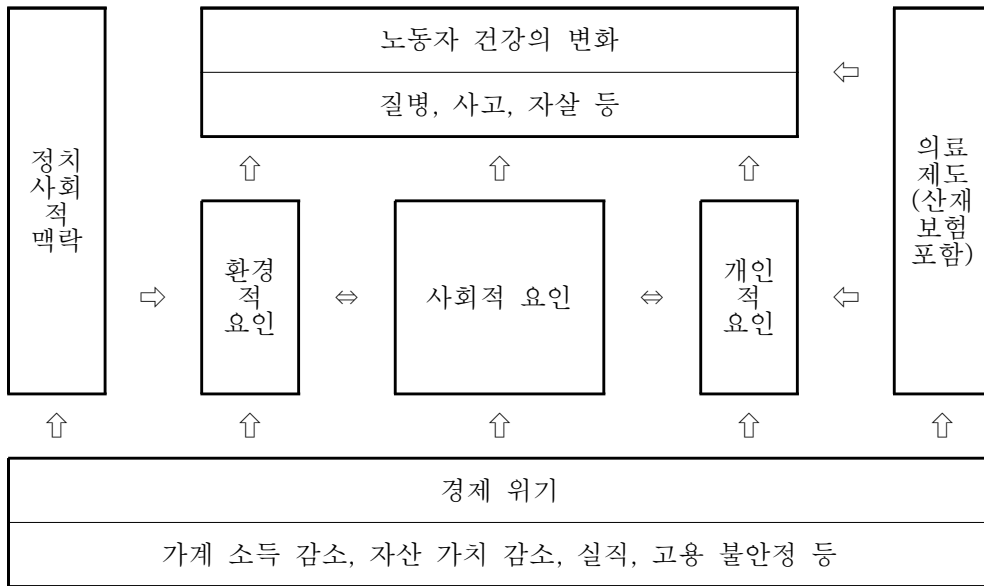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

○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 건강 영향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보다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

-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은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,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

- 하지만 조그만 변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건강상에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

-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자 건강 수준이 저하되면, 이는 노동 인구의 인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, 향후 경제위기 극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

2.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로 인한 결과

○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음

-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방향은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, 특정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, 그리고 위기에 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

○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

-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감소, 육체적 활동량 증가, 음주율 및 흡연율 감소,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 증가 등

○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

- 소득 감소, 실업률 증가, 불안정 노동 증가,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증가, 사회적 규제 완화, 사회안전망 기능 부진, 음주율 및 흡연률 증가, 불건강한 음식 섭취 증가 등

○ 불안정 노동과 노동자 건강

- 불안정 노동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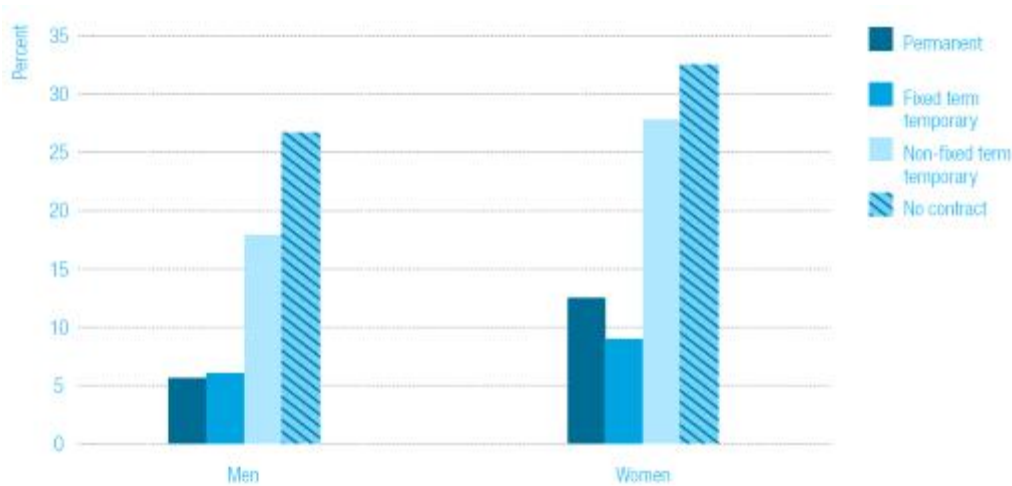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고용 형태에 따른 정신 건강 수준의 차이(스페인 육체노동자)

※ WHO,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, 2008

○ 사회 체제의 붕괴와 건강

- 기존 사회안전망이 붕괴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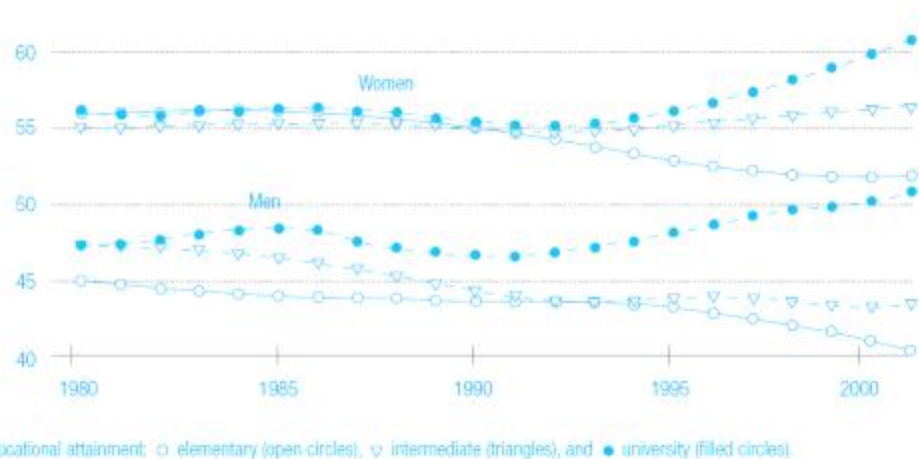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교육 수준에 따른 20세 이상 인구의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(러시아)

※ WHO,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, 2008

○ 경제위기시 산재보험 요양 통계는 노동자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

- 고용 불안 때문에 산재 요양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되므로 경제위기시에 산재보험 요양 통계는 평상시보다 더욱 과소 추계될 수 있음
- 경기 침체로 인한 여파로 사고율 등을 줄어둘 수 있으나,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성기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장기 영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힘들

3. 경제위기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문제

가. 저소득 노동자 문제

○ 역사적 연구들에 의하면, 경제위기는 특히 저소득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
나. 자살 문제

○ 역사적 연구들에 의하면, 경제위기는 특히 한 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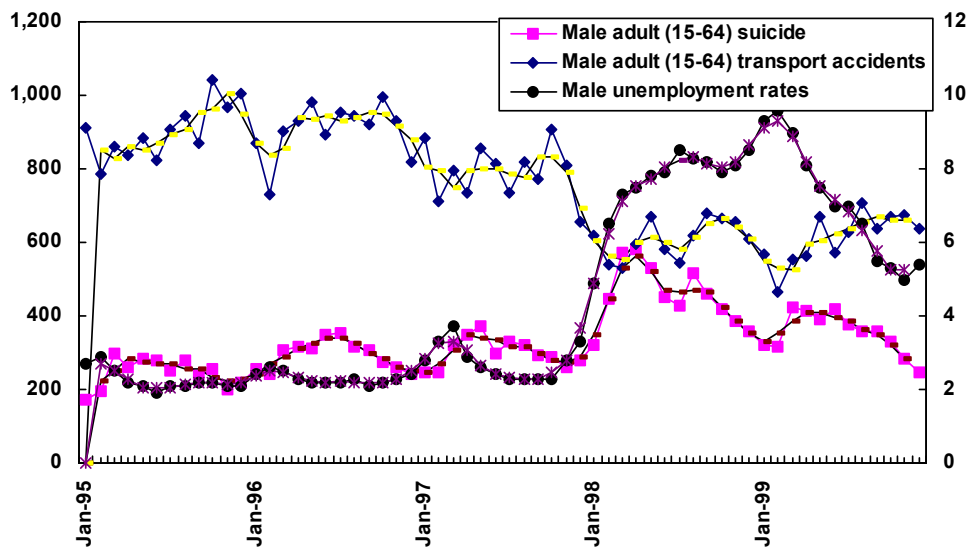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한국의 실업률과 자살률 및 교통사고를

※ 강영호, 미발표 자료, 2009

4.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 예측

○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은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음

- 여러 가지 건강 결정 요인 중 노동시간 감소, 경기 침체 및 생산 감소로 인한 사고율 감소 등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요소임

○ 경제위기가 저소득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,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칠 영향 등도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- 빈부격차가 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임을 고려하면, 한국에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표 1 한국의 불평등 관련 지표

지 표	단위	우리나라		OECD 평균
		-	06년	
지니계수	-	-	0.31	0.31
빈곤율	-	-	0.15	0.11
빈곤갭	%	-	36.03	28.59

※ 2009년 OECD 통계연보

표 2 한국의 공공지출 수준

지 표	단위	우리나라		OECD평균
		06년	07년	
사회적 공공지출	%, GDP대비	6.3	6.9	20.5(05년)
보건관련 지출	%, GDP대비	5.9	6.4	9.0

• 경제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였던 것을 고려하면, 경제위기 시 한국 노동자의 자살률 또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

표 3 한국의 자살률 수준

지 표	단위	우리나라		OECD평균
		06년	07년	
자살률	10만명당	-	18.7	11.88
.남자의 자살률	10만명당	-	28.1	19.0
.여자의 자살률	10만명당	-	11.1	5.4

5.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정책

가.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 경향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

○ 소득 수준, 실업률, 비정규직 비율, 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구조 구축

○ 산재보험 적용 기피 현상 및 요양 조기 종결 사례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

○ 산재보험 요양 통계외에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, 모니터링

나.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

○ 소득 보장 정책 - 기준 임금, 실업 수당 등

○ 실업 대책 - 노동시간 단축, 일자리 나누기,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, 노동자 재교육 등

○ 고용의 안정화 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무분별한 구조 조정 방지 등

○ 산재보험 제도 개혁 -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, 적용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등

다.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

○ 노동안전보건 규제 유지, 강화

○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지도, 감독 강화

- 유해 물질 및 유해 기구 사용에 대한 지도, 감독 강화
- 산재 은폐에 대한 지도, 감독 강화
- 산재 환자 해고 위협에 대한 지도, 감독 강화

라. 특별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

○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

- 최저임금 인상
-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
- 실직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, 급여 수준 상향, 급여 기간 연장

○ 노동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

•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- 저소득 노동자, 실직자, 구조조정 예정자, 산재 요양자 등

• 고용안정센터 등을 포스트로 고위험 노동자 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